

202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⑤	2	⑤	3	④	4	⑤	5	⑤
6	③	7	③	8	③	9	①	10	⑤
11	④	12	④	13	④	14	②	15	③
16	④	17	②	18	③	19	②	20	⑤
21	④	22	③	23	④	24	①	25	④
26	④	27	①	28	④	29	⑤	30	③
31	③	32	②	33	⑤	34	③		

[독서이론]

[1 ~ 3] <출전> 김원준, 「격치를 통한 율곡 독서방법론의 확장」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다독은 책과 책을 연계하여 서로의 의미를 이해하고 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하였으므로, 다독이 책의 깊이를 측량하기 위한 독서에서 벗어난 독서법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책 속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대할 때 마음가짐이 흠어지면 올바른 독서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율곡은 자신이 강조하는 ‘독서에서 벗어난 그릇된 독서법을 독서 병통이라 부르며, 그 유형과 해결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율곡 이이는 책 속에 담긴 이치를 밝혀 이를 실천하는 독서를 강조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독서에 온 마음을 다한다고 해도 늘 이치에 다다를 수는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㉞는 유학 경전인 『중용』을 읽으면서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해 많이 배웠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율곡의 입장에서는 성현의 뜻을 이해하고 앎을 확장했음에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발생한 ‘책과 자신이 유리된 병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율곡의 입장에서 ㉞를 책에 담긴 성현의 뜻에 대한 선입관으로 발생한 병통으로 보고, ㉞에 해당하겠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㉞는 『중용』을 통해 우주의 미래를 보는 법과 같은 초월적 지식을 배울 수 있다고 여기고 읽다 정작 책에 담긴 지식은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율곡의 입장에서 책에 초월적 지식이 있다고 여기고 이를 얻으려고 하다가 발생한 ‘기이한 것에 현혹되는 병통’에 해당하겠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㉞는 깊은 생각 없이 글귀 자체의 뜻만 밝히며 읽어 막상 글에 숨겨진 이치는 파악하지 못한 경우로, 율곡의 입장에서는 ‘그저 책만 읽는 병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글귀의 옳고 그름을 깊이 따지며 읽는 독서법을 조언할 수 있겠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③ ㉞는 책이 조금만 어려워도 이치에 도달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온 마음을 다해 읽으려고 하지 않고 독서를 포기한 경우로, 율곡의 입장에서는 ‘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병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책을 한 단락씩 세심하게 읽어 나가는 독서법을 조언할 수 있겠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④ ㉞는 욕심이 지나친 다독으로 마음만 급하여 어떤 책도 음미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율곡의 입장에서는 ‘마음만 앞서는 병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책 한 권의 의미를 모두 알게 된 후에 다른 책을 읽는 독서법을 조언할 수 있겠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3.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보기>에서는 책을 읽을수록 수많은 궁금증과 어려

움이 생기는 것은 지혜의 문에 도달하려는 신호이기 때문에 책 읽기를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A]에서는 독서 중 의문이 많아진다고 독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4 ~ 9] <출전> 임병웅, 「특허법」

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가)는 특허 출원 시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 (나)는 특허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원칙인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가)의 5문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은 ‘발명의 효과 면에서 선행 발명과 유사함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므로 선행 발명과 발명의 효과가 다르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간주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서 특허권을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특허 출원 명세서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문단에서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1문단에서 특허 제도는 ‘일정 기간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허권을 특허 출원인에게 부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1문단에서 특허권은 ‘모방과 도용이 쉬운 반면 ~ 특허권 침해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기

(가)의 3문단에서 종속항은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 사항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에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청구항 1]은 발명의 범위를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항이고, [청구항 3]은 [청구항 2]를 인용한 종속항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에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출원인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항목’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4문단에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3문단에서 종속항이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학습지 내용에서 [청구항 2]가 상기 몸체의 형상을 육각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2문단에서 특허청구범위는 ‘해당 발명을 ~ 결합 관계 등이 서술’되었다고 하였고, 학습지 내용에서 [청구항 3]이 [청구항 2]를 인용하면서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되었다는 구조 및 결합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기

(가)의 5문단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 신규성이 부정된다’라고 하였고, <보기>에서 ‘병’의 발명의 구성 요소 중 ‘다각형 형상의 몸체’는 ‘갑’의 발명의 해당 요소인 ‘육각형’의 몸체 형상보다 상위 개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5문단에서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물리적 동일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을’의 발명의 구성 요소는 ‘갑’의 발명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동일성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3문단에서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은 ~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하였고, <보기>의 ‘을’의 발명과 ‘갑’의 발명을 비교하였을 때 ‘을’의 발명에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지우개가 없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4문단에서 균등론의 원칙에 따르면 ‘확인 대상 발명이 ~ 균등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6문단에서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를 ~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보기>에서 ‘정’의 발명이 ‘갑’의 발명과 비교하였을 때 반대쪽에 뚜껑을 포함하고 있어 신규성을 인정받더라도 이것이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나)의 5문단에서 간접 침해에 대해 ‘기존 특허 발명이 방법인 경우 ~ 물건을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보기>의 [사례 2]에서 C가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한 것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간접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2문단에서 직접 침해는 ‘특허 발명의 ~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보기>의 [사례 1]에서 A는 특허가 등록된 자전거의 완성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5문단에서 ‘특허권을 지닌 완성품이 ~ 판매하는 행위’는 최종적으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이는 <보기>의 [사례 1]에서 A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5문단에서 간접 침해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특허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라고 하였고, <보기>의 [사례 2]에서 C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직접 침해는 ‘특허 발명의 ~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보기>의 [사례 2]에서 일반인 B의 특허 발명은 ‘특정 농약을 사용하여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C의 행위는 해당 농약을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은 문맥상 ‘대상을 평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의 행동은 실수로 보고 감싸 주어야 한다.’에서 ‘보고’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상대편의 형편 따위를 헤아리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기회, 때, 시기 따위를 살피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인문]

[10 ~ 13] <출전> 김철신, 「공손룡과 후기 목가의 정명론 비교 연구」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5문단에서 후기 목가가 ‘가리키는 대상이 오직 하나’ 일 때 붙이는 이름을 사명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후기 목가에 따르면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유명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 따르면 후기 목가는 ‘천지 만물을 총괄하여 지시하는’ 이름이 달명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공손룡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천지 만물’이 ‘물’이고 “물’에서 분화된 각각의 개체’가 ‘실’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명실의 문제가 ‘전국시대 중엽 이후에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을 가진 철학적 주제로 정립되었다’라고 하였고, 공손룡과 후기 목가가 ‘이 시기에 이렇게 명실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서 공손룡은 ‘서로 다른 실인 이것[此]과 저것[彼]이 똑같이 ‘이것’이라는 명으로 지시된다면 서로 구별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각기 다른 실인 이것과 저것을 똑같이 확이라는 명으로 지시한다면 이것과 저것은 서로 구별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기

㉔라는 명은 일반적인 옷을 지시하는 명으로, 곧 3문단에서 언급하는 ‘특정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단어이고, ㉕라는 명은 빨간 옷을 지시하는 명으로, 곧 3문단에서 언급하는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이다. 3문단에 따르면 공손룡은 위의 ‘특정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단어와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가 ‘지시하는 실이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㉔라는 명과 ㉕라는 명이 지시하는 대상이 같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㉑ 2문단에 따르면 공손룡은 ‘명과 실의 엄격한 일대일 대응 관계’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㉔와 ㉕는 ‘옷’이라는 같은 명이지만, ㉔라는 명은 빨간 옷을 지시하고 있고, ㉑라는 명은 감이 들고 있는 옷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두 ‘명’은 지시하는 실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㉒ 4문단에 따르면 후기 목가는 ‘하나의 명이 지시하는 실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주장’에 반대하고 ‘하나의 명이 서로 다른 사물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㉔라는 명과 ㉔라는 명은 ‘옷’이라는 같은 명이지만, ㉔라는 명은 빨간 옷을 지시하고 있고, ㉔라는 명은 일반적인 옷을 지시하고 있어 서로 지시하는 실이 다르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㉓ 5문단에 따르면 후기 목가는 ‘수많은 사물 가운데 어느 하나의 속성을 공유하는 것들을 지시하는 이름’을 유명이라 하였고, ‘유명을 단 하나의 개체에만 대응하게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명’을 사명이라고 하였다. ㉕라는 명은 감이 들고 있는 하나의 옷을 지시하는 명인데,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는 ‘옷’이라는 명은 5문단의 ‘새[鳥]’와 같은 유명이고 ㉕라는 명은 옷이라는 유명을 감이 들고 있는 단 하나의 옷에 대응하게 한 ‘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㉖ 3문단에서 공손룡은 흰 말이 ‘말에 ‘회다’는 속성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말과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그의 관점에서 ㉕라는 명이 지시하는 빨간 옷은 ㉕라는 명이 지시하는 일반적인 ‘옷’에 빨강다는 또 다른 속성이 함께하는 것이어서, ㉕라는 명이 지시하는 ‘옷’과 다르다. 그리고 2문단에 따르면 공손룡은 ‘명과 실의 엄격한 일대일 대응 관계’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손룡의 견해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실은 서로 다른 명으로 불러야 하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보기>에 따르면 ‘기표’는 소리, 즉 ‘언어 기호의 형태’를 의미하고 ‘기의’는 ‘언어 기호에 의해 의미되는 개념’, 즉 ‘언어 기호가 지시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2문단과 5문단을 통해 공손룡과 후기 목가가 공통적으로 이룸인 ‘명’이 ‘실’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기의’가 ‘실’에, ‘기표’가 ‘명’에 각각 대응된다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문단에 따르면 공손룡은 하나의 실이 단 하나의 명에 의해서만 지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하나의 기의를 여러 가지 기표가 지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손룡의 입장에서는 ‘기표가 서로 다르면서 기의가 같을 수는 없다’고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후기 목가는 하나의 실이 여러 가지 명에 의해 지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하나의 기의를 여러 가지 기표가 지시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 목가의 입장에서는 ‘기표가 서로 달라도

기의는 같을 수 있다’고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과학]

[14 ~ 17] <출전> 가출현 외, 「센서공학」

1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감지부에서 새롭게 생성된 전류는 집전장치를 통해 한곳으로 모아져 센서 핀으로 이동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3문단에서 ‘산화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백금과 같은 촉매로 코팅되어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㉓ 3문단에서 ‘감지부는 평상시에도 기준 전극에서 생성되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㉔ 3문단에서 작용 전극에서 산화 반응을 한다고 했고, 산화 반응을 거쳐 발생한 수소 이온과 전자는 전해질을 매개체로 하여 대응 전극으로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㉕ 5문단에서 즉시 경보형은 ‘독성 가스와 같이 가스의 발생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작용 전극이 여러 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다공성 막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는 작용 전극에서의 산화 반응을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뿐 유입되는 가스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2문단에서 먼지 필터는 기체가 아닌 불순물들을 거른다고 했고, 간섭 가스 필터는 특정 가스를 검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가스들은 필터에서 흡착시키고, 검지하려는 가스만 통과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㉒ 2문단과 3문단에서 센서의 유입부로 들어온 가스는 간섭 가스 필터에서 검지하려는 가스만 분리막으로 이동하고, 이 가스는 감지부로 이동하여 작용 전극에서 산화 반응을 통해 수소 이온과 전자를 생성하여 전해질을 매개로 대응 전극으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는 유입된 가스의 농도에 비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㉔ 3문단에서 감지부에서는 평상시에도 기준 전극에서 생성되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고 했고, 4문단에서 센서 핀에서는 새롭게 생성된 전류의 양과 평상시 흐르는 전류의 양을 비교하여 새롭게 생성된 전류의 양이 더 많다면 가스 누출을 검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㉕ 3문단에서 대응 전극에서는 수소 이온과 전자가 후방부의 산소 유입구에서 공급된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5문단에서 지연 경보형은 일정한 시간으로 설정된 지연 시간 동안 가스의 농도가 경보설정치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에 경보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래프에서 ㉑이 C에서 경보를 냈다면 경보설정치인 P<sub>1</sub>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은 B와 C 사이 동안이고 이 시간이 지연 시간이다. 따라서 경보 지연 시간이 D만큼 설정되어 있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㉑ 5문단에서 가스 센서를 통해 검지된 가스가 경보설정치인 기준 농도 이상일 때 경보기에서는 이를 알리기 위한 경보를 낸다고 했다. 그래프에서는 A에서의 가스 농도가 경보설정치 P<sub>1</sub>보다 낮으므로 A에서 ㉑과 ㉑ 중 어떤 것도 경보를 내지 않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㉒ 5문단에서 즉시 경보형은 가스 농도가 경보설정치 이상이 되면 바로 경보를 내고, 지연 경보형은 경보를 내기 위해서는 지연 시간 동안 가스의 농도가 경보설정치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

다고 했다. 그래프의 B에서의 가스 농도는 경보설정치에 해당하는 지점에 있으므로 ㉑은 즉시 경보를 내게 되고, ㉑이 경보를 내기 위해서는 지연 시간 동안 가스의 농도가 경보설정치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경보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B에서 ㉑은 경보를 내지만 ㉑은 경보를 내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㉓ 5문단에서 즉시 경보형은 가스 농도가 경보설정치 이상이 되면 바로 경보를 낸다고 했다. 그래프에서 경보설정치가 P<sub>1</sub>일 경우에는 B에서 경보를 내고, 경보설정치가 P<sub>2</sub>일 경우에는 설정 농도가 낮아지므로 B보다 앞선 지점에서 경보를 낼 것이다. 따라서 ㉑이 경보를 내는 시점이 더 빨라지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㉕ 5문단에서 지연 경보형은 일정한 시간으로 설정된 지연 시간 동안 가스의 농도가 경보설정치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에 경보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따라서 ㉑이 경보를 냈다면, 경보 지연 시간 동안은 가스 농도가 P<sub>2</sub> 이상이였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도달’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어떤 곳이나 때를 거쳐서 지나감’은 ‘통과’의 사전적 의미이다.

[고전시가]

[18 ~ 21] <출전> 이호민, 「서호가」  
남극엽, 「애경당십이월가」

18.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아하아 격정마라’에서, (나)의 ‘아하야 술 부어라’에서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㉑에서 ‘발이 하 성기’다는 것은 화자가 거하는 거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뿐 화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㉑에서 화자는 ‘금곡’, ‘서호’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며, 배를 타고 이동한 여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㉑에서 화자는 ‘편안’한 ‘오늘’과 달리 ‘동서’로 ‘분주’하여 ‘주야’를 몰랐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㉑에서 화자는 ‘춘계’가 어느새 운다고 시간의 경과를 언급하며 할 일이 전혀 없는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㉕ ㉑에서 화자는 시야에 들어온 ‘흰 듯 검은 것’이 구름이라는 것을 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및 의미 이해하기

(가)에서 ㉔는 ‘짧으나 짧은’ 시간으로 꿈에서 만난 ‘님’에게 ‘사설’을 ‘사뢰나 묻내 사뢰어’ 아쉬움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나)에서 ㉕는 ‘조흔 경치’에 ‘놀지 안코 무슌하’냐고 하며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이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하기

(나)에서 ‘사람으로 새만 못하여 한’이라는 것에는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한 사대부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으나 (가)에서 ‘풍우성’에 잠을 깨고 ‘한숨 짓’는 것에는 자연과의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가)에서 ‘사립문’이 본래 없는 ‘강촌의 와실’에는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대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가)에서 ‘님 그려’ 짓은 ‘소매’를 ‘벌’으로 말린다는 것에는 임금을 향한 사대부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나)에서 농부의 ‘노랫 소리’를 아름답다고 하며 ‘태평곡’으로 화답하는 것에는 향촌 공동체의 구성원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대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강변’을 걸으며 ‘만랑이 더욱 도타’고 하는 것에, (나)에서 취한 잠에서 ‘늦게 깨어 강가’를 바라보는 것에 자연을 즐기는 사대부의 여유로운 일상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 [현대시 · 고전수필]

[22 ~ 26] <출전> 이육사, 「노정기」  
최승호, 「발효」  
김진규, 「물인설(沒人說)」

### 22.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나)는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에서, (다)는 ‘그러므로 사람은 ~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해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하지만 (가)에서 ‘밭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타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쟁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온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 24.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가)는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에서 남들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나’의 주관적 인식을, (다)는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에 건주어 보면 ~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냐고 묻는 것에서 벼슬하는 사람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잠수부’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5. [출제의도] 작품의 맥락 이해하기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는 [B]에서 ‘나’가 ‘목은 관료들’이 ‘숙변’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치욕’을 받아들인 것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나’가 ‘침묵’하고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가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잉어들은 찼찼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글쓴이는 ‘일을 택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있을 뿐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고전소설]

[27 ~ 30] <출전> 작가 미상, 「현수문전」

### 2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산 위에서 대포 쏘는 소리가 나고 ~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였다’와 ‘소리가 심히 처량하여 ~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흩어지니라.’에서 감각적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8.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사관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좌승상 석침을 데리고 황성으로 향하니라’고 하였으므로 황성에서 사관이 좌승상 석침과 함께 있던 새 위왕을 만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적군이 건디지 못하여 불길을 무릅쓰고 달아나는 데, 또 위왕의 군진을 만나니 ~ 죽은 자를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를 통해 남주성에서 진골대가 위왕의 군사로부터 크게 패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백성들이 길에서 울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답하여 말했다’를 통해 화음현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구골대가 능히 대적하지 못하여 ~ 죽었다.’를 통해 거창산에서 벌인 전투 이후에 구골대는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도로 용상에 누워 혼절하니 ~ 만조백관들이 허둥지둥 어찌할 줄 몰랐는데’를 통해 궁내에서 혼절한 새 황제를 보고 만조백관들이 허둥지둥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29.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구골대가 몹시 놀라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죽을 줄을 알았으랴?’고 하였으므로 ㉠은 구골대를 위태롭게 하는 소재이고, ‘새 황제에게 먹이게 하였더니 ~ 상패 해졌다’고 하였으므로 ㉡은 새 황제를 위태로움에서 구하는 소재이므로 적절하다.

###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군사를 일으켰다가 아까운 장수와 군졸만 죽었으니, 어찌 분하고 한스럽지 않으랴?’에는 서번왕이 군사를 일으킨 것에 대한 분함과 한스러움이 드러나 있을 뿐 제후가 황제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조충이 본디 외람한 뜻을 두었으나 매양 위왕 부자를 꺼리다가 ~ 새 황제에게 헐뜯고 죄 있는 것처럼 고하여 바친 것’이라는 것을 통해 황제가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새 위왕이 크게 놀라 문득 일광대사의 가르친 일을 생각하고 단소를 내어 ~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흩어지니라’는 것을 통해 영웅적 기지를 발휘해 고난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서번왕’이 ‘새 황제의 조서를 받고서 망령되이 군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통해 황제가 다른 세력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제후국에 군사적 압력을 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위왕에게 항복

하는 진골대가 ‘우리 왕이 구태여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새 황제가 시킨 것’이라는 것과 위왕의 아들 새 위왕이 ‘수천 군마가 ~ 에워싸서 말할 수 없이 절박’하게 된 것을 통해 제후와 황제의 갈등이 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현대소설]

[31 ~ 34] <출전> 김정한, 「평지」

###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B]에는 허 생원이 ‘그의 집’에서 ‘아이들의 말을 듣고 ‘독 너머’로 가 ‘논’에서 팻말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 ‘도끼를 찾아 들고’ 다시 ‘자기 들의 포플라 밭’으로 나가 도끼로 ‘마구 찍’는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 3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이해하기

‘청년’은 ‘능글맞’은 태도를 보인 뒤 허 생원의 말에 이어 ‘내쳐 능글능글한 태도를 고치지 않’고 ㉠과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허 생원의 반박에 이전과 태도를 바꿨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청년’은 ‘허 생원’이 ‘경계심’을 보이자 ‘약간 의외인 듯한, 그래서 다소 거북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과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허 생원’은 ‘청년’이 ‘경멸의 빛’을 보이며 자신을 알보자 ‘데데하게 물려’서지 않고 ‘쏘아보’며 ㉡과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부락 사람들’은 ‘이렇게 격정들’을 하며 ㉢과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허 생원’은 ‘숨진 아들’을 떠올리고 ㉣의 ‘이렇게 된’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들은 허 생원이 ‘〈먼 앞날〉보다 우선 코앞에 다가 있는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는 허 생원이 자신에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는 허 생원에게 ‘정식 징역감이지만 서울 있는 그 유력자의 특별한 부탁으로 석방되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는’ 것으로 허 생원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국유지면 서울 놈들만 가지라 카는 법도 있’냐며 ‘삼십 년이나 논밭을 치고 갈아’왔다는 것에는 오랜 시간 가꾸온 밭을 ‘서울 모 유력자’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드러나 있을 뿐 농민이 과거에도 억압적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곳에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모 유력자가 그 일대의 〈휴면법인토지〉를 도통 쓰게 되었다’는 것에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에게 농민이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상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통고 비슷한 말’은 허 생원이 농사를 짓는 땅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 도통 쓰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허 생원이 이를 ‘멸절한 남의 땅을 맘대로 뺏’는다고 여기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에 근대화 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촌사람들끼리 같으면’ ‘암것도 아닌’ 일에 ‘구류를 살’게 되면서 ‘법도 사람 따라 다르’다고 억울해 하는 것에 농민이 사회 제도에서 상대적 약자라고 여기는 인식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둘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도끼질’을 하고 ‘불’을 지르는 것에 땅을 빼앗긴 불합리한 현실에 농민이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과 작문]

35	⑤	36	④	37	③	38	②	39	⑤
40	⑤	41	②	42	④	43	①	44	④
45	③								

3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3문단의 ‘구조색이란 색소의 영향이 아닌 물리적 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색을 말하는데요.’에서 정의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조색이라는 핵심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공작의 깃털이 파란색과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한 ㉔의 질문과 함께 공작의 깃털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㉔의 질문은 발표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질문일 뿐 발표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청중이 있음을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발표자와 청중이 현장 체험 학습 때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장 체험 학습 때 본 공작에 대한 ㉑의 질문과 함께 직접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오팔 구조에 대한 내용이 청중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오팔 구조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㉔의 질문과 함께 오팔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멜라닌 색소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과학 시간에 배운 멜라닌 색소에 대한 ㉒의 질문과 함께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관련된 예시인 머리카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공간의 특성상 뒤에 앉은 청중에게 발표 자료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뒤에 앉은 청중에게 발표 자료가 잘 보이는지 확인하는 ㉔의 질문과 함께 공작의 깃털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 자료를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3’은 ‘말이 빨라서 발표 내용을 메모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발표자의 말하기 속도에 대해 평가하며 듣고 있지만 발표 내용에 대한 자신의 듣기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다른 새들의 화려한 깃털 색도 공작처럼 구조색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발표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구조색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구조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 조사해 봐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평소에 공작의 깃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고, ‘학생 3’은 ‘구조색의 원리를 활용한 기술이 실생활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두 학생 모두 발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2’는 ‘오팔 구조에 의한 구조색만 이야기해 주어서 아쉬웠’다고 말했고, ‘학생 3’은 ‘구조색의 원리를 설명할 때 조금 천천히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두 학생 모두 발표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역할 이해하기

‘학생 1’의 발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제시한 근거의 출처를 요구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① ‘학생 1’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공중전화가 없어지면 불편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에서 휴대전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중전화가 필요한 이유로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며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 시간에 ‘기술 발전으로 사라지는 것들’ 중 공중전화에 대해 비평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정한 사항을 환기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에서 대화 주제인 ‘공중전화 폐지’와 관련하여 대화 참여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의 네 번째 발화에서 공중전화가 불편적 서비스라는 ‘학생 2’의 발화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B]의 ‘학생 3’은 ‘학생 2’가 공중전화가 없어진다면 불편을 겪을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 문제 상황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통신비 지원과 통신기기 대여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쓰기에 반영된 양상 파악하기

(가)의 공중전화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4문단에서 공중전화를 포함하여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경제적 효용성을 강조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공중전화 이용량이 줄었다는 내용을 (나)의 1문단에서 공중전화 이용량이 급감하면서 공중전화 폐지라는 현안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재난 등의 비상 상황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가)의 내용을 (나)의 2문단에서 공중전화가 개인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법 규정인 전기 통신 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나)의 3문단에서 공중전화의 국민 복지 차원의 가치를 드러내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간이역 사례를 (나)의 4문단에서 공중전화의 유지에 대해 경제적 관점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나)의 1문단에 자신의 입장은 밝혔지만 입장이 변한 이유와 과정을 밝힌 부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도입부에 공중전화는 유지되어야 한다며 화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3문단에 핵심 쟁점인 ‘공중전화의 폐지’에 대해 글쓴이가 내세우고 있는 의견과 대립하는 주장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중전화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 전기 통신 사업법의 내용과 그 내용에 포함되는 대상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 긴급 통신 서비스, 섬 지역 통신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공중전화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공중전화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핵심 단어인 공중전화를 포함하고 있고, 공중전화의 가치를 우산에 비유하고 있으며 공중전화를 유지하는 글의 주제를 ‘계속 우리와 함께’라는 구절에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글’은 도시 낙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해야 하는 캠페인 활동, 도시 낙엽을 퇴비로 가공한 뒤 판매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1-㉔]에서 미수거된 낙엽이 900t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2]에서 △△시가 시민들의 낙엽 수거 참여 독려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글’에는 도시 낙엽을 치워야 하는 이유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자료 1-㉔]와 [자료 2]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의 사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㉔]에서 폐기되는 낙엽의 양이 17400t으로 다른 처리 방식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의 글’ 2문단에서 지자체들이 수거된 도시 낙엽을 주로 폐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2]에서 □□시가 수거한 낙엽을 테마 공원에 무상 제공하여 관광자원으로 재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의 글’ 3문단에서 도시 낙엽을 수거하여 축사 바닥 깔개나 보온재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3]에서 낙엽이나 장작 등을 태우는 생물성 연소가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위해성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의 글’ 2문단에서 도시 낙엽은 일반 쓰레기와 달리 소각 처리하며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1-㉔]에서 ○○시 전체 가로수 중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의 비율이 66%라는 것을 통해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가 ○○시 가로수의 주된 수종임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3]에서 천연 살충 성분을 지닌 은행나무 낙엽을 모기 퇴치제로, 플라타너스 낙엽을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㉔]와 [자료 3]을 활용하여, 도시 가로수의 주된 수종과 특성을 파악하여 낙엽을 경제적 자원으로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친구들의 조언에 따르면 두 번째 문장에서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는 부분인 ‘도시 낙엽은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시킨다’의 서술어인 ‘발생시킨다’를 수정해야 하지만 글쓴이는 [A]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조언을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느껴지게 한다.’라고 피동 표현이 알맞지 않게 사용된 것을 [A]의 첫 번째 문장에서 ‘~느끼게 한다.’로 바꾸었기 때문에 조언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 [A]에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접속 표현 ‘그런데’를 사용하여 연결했기 때문에 조언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의 두 번째 문장에서 ‘도시 낙엽’의 의미를 [A]의 두 번째 문장에서 ‘도시 가로수들이 만들어 내는 도시 낙엽’이라고 꾸며주는 말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조언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어 [A]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조언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㉔	36	㉓	37	㉒	38	㉑	39	㉐
40	㉔	41	㉔	42	㉔	43	㉔	44	㉔
45	㉔								

35. [출제의도] 동음이의어의 유형 이해하기

‘그 책을 쥐.’의 ‘그’는 관형사이고 ‘그는 여기 있다.’의 ‘그’는 대명사로, 두 단어는 모두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지만 품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반드시’와 ‘반듯이’는 모두 [반드시]로 발음되어 소리가 같지만 표기가 다르므로 적절하다. ③ ‘전등을 갈다.’의 ‘갈다’와 ‘칼을 갈다.’의 ‘갈다’는 모두 동사로 품사가 동일하고, 모두 ‘갈고, 갈아, 가니, 가오’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므로 적절하다. ④ ‘커튼을 걷다.’의 ‘걷다’는 ‘걷고, 걷어, 걷으니’와 같이 활용하고 ‘비를 맞으며 걷다.’의 ‘걷다’는 ‘걷고, 걸어, 걷으니’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적절하다. ⑤ ‘한 사람이 왔다.’의 ‘한’은 관형사이고, ‘힘이 닿는 한 돕겠다.’의 ‘한’은 명사로 품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과 품사 이해하기

‘누르다 1’은 동사이고 ‘누르니, 눌러’와 같이 활용하며, ‘누르다 2’는 형용사이고 ‘누르니, 누르러’와 같이 활용하여, 두 단어는 품사가 다르고 활용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또 ‘이르다 1’은 동사이고 ‘이르니, 이르러’와 같이 활용하며, ‘이르다 2’는 형용사이고 ‘이르니, 일러’와 같이 활용하므로 두 단어는 품사가 다르고 활용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르다 1’과 ‘이르다 3’은 모두 동사이고 ‘이르니, 일러’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 양상이 동일하며, ‘바르다 1’과 ‘바르다 2’ 또한 모두 동사이고 ‘바르니, 발라’와 같이 활용하여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따라서 ㉔에 해당하는 예는 ‘누르다 1과 2, 이르다 1과 2’이다.

37.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 이해하기

‘값없이[가볍씨]’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㉔의 ‘쫄녕쿨[칭녕쿨]’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일어나 모두 탈락과 교체가 각 한 번씩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① ‘백합화[배카꽈]’는 거센소리되기가 두 번 일어나 축약이 두 번, ㉔의 ‘국화꽃[구과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교체와 축약이 각 한 번씩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살살이[산싸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일어나 교체가 세 번, ㉔의 ‘열집[엽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교체가 두 번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뭉뭉이[몽목씨]’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탈락이 한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나고, ㉔의 ‘샅일[상닐]’은 자음군 단순화, ‘ㄴ’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탈락, 첨가, 교체가 각 한 번씩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백분율[백뽀늘]’은 된소리되기와 ‘ㄴ’첨가가 일어나 교체와 첨가가 각 한 번씩 일어나고, ㉔의 ‘호박엿[호:방넝]’은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첨가가 일어나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부사절 ‘재주가 있게’는 서술어 ‘생겼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① 부사절 ‘밤이 새도록’은 서술어 ‘하였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② 관형절 ‘그가 있는’은 서술어 ‘갔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부사절 ‘말도 없이’는 서술어 ‘떠나 버렸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관형절 ‘부지런한’과 부사절 ‘나와는 달리’는 서술어 ‘일어난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반즈뵤대’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대왕’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부텃’은 높임의 대상인 ‘부터’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하다. ② ‘노퍽샤’는 ‘부터’의 신체 일부인 ‘뎡바깃뼈’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ㅁ트실씨’는 현대 국어와 같은 형태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하다. ⑤ ‘좌시다’는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 어휘로서 주체인 ‘왕’을 높이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

(가)는 ○○군 공식 블로그로 정보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의 정보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나)는 휴대 전화 메신저로 정보 생산자가 ‘우리 모둠 대화방’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매체 활용 방식 분석하기

‘수진’은 치유농업을 다룬 뉴스 동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치유농업이 인지적 기능까지도 향상시켜 준다’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서연’은 ‘치유농업 홍보 영상 제작 계획서.hwp’를 공유하며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들에게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지훈’은 답장 기능을 활용하여 ‘서연’에게 ‘언제 이런 걸 ~ 철저한 준비성!’이라고 하며 상대방의 자료 준비 태도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태준’은 ‘추가적인 것까지 ~ 좋은 자료네.’라고 하며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반응을 ‘수진’에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수진’은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투표해 줘.’라고 하며 대화 참여자들에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㉔에서 ‘주면서’의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서 ‘드리려고’의 ‘-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를 준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서 ‘지역 초등학교에서’의 ‘에서’는 앞말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원예 체험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서 ‘라고’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행사 참여자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에서 ‘몰라서’의 ‘-아서’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분석하기

‘지훈’의 세 번째 말을 보면 ‘열매가 하나씩 나올 때

마다 효과음을 함께 제시하자.’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지훈’의 두 번째 말을 보면 ‘높은 곳에서 ~ 배경 음악도 삽입하자.’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수진’의 세 번째 말을 보면 ‘그런데 개념을 ~ 좋을 것 같아.’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태준’의 네 번째 말을 보면 ‘그다음 장면으로 ~ 높아질 거야.’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수진’의 네 번째 말을 보면 ‘마지막 장면은 ~ 없음을 드러내자.’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특성 이해하기

㉔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최신 등록 순, 공감 순, 조회 순’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게시물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지 게시물의 개수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하기, 내 글 확인하기, 공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기’로 게시판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에는 이용자가 찾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는 이용자가 ‘□□시 청소년 정책 참여 마당’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 지정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시 누리집 바로 가기’ 링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는 ‘예술, 탄소, 진로’와 같이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화제를 알 수 있는 인기 검색어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분석하기

‘학생 4’는 [화면 2]의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에서 ‘스마트 기기를 ~ 만들어 주세요’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스마트 기기를 ~ 많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의 ~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스마트 기기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화면 2]의 ‘제안 이유’에서 ‘요즘 청소년의 ~ 증대되고 있습니다.’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최근 문화 예술 경험이 ~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정책 제안의 시의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화면 2]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 접근성이 떨어집니다’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 시내버스 말고도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화면 2]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우리 지역 ~ 많이 폄하합니다.’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출처가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5’는 [화면 2]의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 만들어 주세요’에 주목하여 댓글에서 ‘자기 주도적인 ~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여 정책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적절하다.